

# 남원시체육회 부적정 운영 적발

### 남원시 감사실, 운영 전반 자체감사 결과 회계관리·수익금 운영 등 방만 운영 무더기 적발

남원시 감사실은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24일까지 2023년 2월부터 2024년 3월까지의 남원시체육회 운영 전반과 보조금 집행 실태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실 자료에 따르면 한해 40여억 원의 보조금을 받아 운영되는 시 체육회가 시 자체감사에서 회계관리와 수익금 운영 등의 방만·부적정한 운영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번 감사는 보조금을 받아 운영되는 시 체육회의 지역 국회의원 선거 개입 의혹이 지역사회에 제기되며 보조금이 선거 관련 자금으로 유입되었는지 여부와 보조사업이 당초 사업계획서대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하였는지에 초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 6건, 주의 15건, 시정·주의 17건 등 총 3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

였으며, 신분상으로는 기관경고 1건, 재정상으로는 21건 1,869만8,000원을 회수 조치했다.

시 체육회는 이번 감사를 통해 △보조금을 당초 사업계획과 다르게 집행하거나 증빙자료 없이 집행 △공공체육시설(4개소) 사용료를 감경 대상이 아님에도 감경하여 81,000원원 정도 세외수입 감소 △신규 채용과정에서 자격 미달자를 서류심사에 합격 면접 후 채용 △세금계산서 없이 보조금 집행 △동일 물품에 대한 구입비 과다 집행 △숙박비와 식비 중복 지급 △공개입할 대상을 수의계약 체결 및 분할 수의계약 체결 △대회 참가비 등 체육회 자체 수익금 328,939천원을 정산하지 않고 목적에 맞지 않게 방만하게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남원시는 체육회에 “기관경고”

처분하고, 보조금 정산 지연과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등 부적정 집행에 대한 감사 지적 사항이 있는 체육회와 종목단체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감액할 계획이다.

또한 대회 운영 및 보조금 정산이 우수한 종목단체를 선정하여 기존 남원시 체육회를 통하여 지급하던 보조금을 시에서 종목단체로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감사실 관계자는 “시민의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보조단체에 대한 보조금 교육 및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하여 청렴하고 부패 없는 남원시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 임실군, 탄소중립사회 ‘앞장’

### 온실가스 배출 저감 위해 전기차 민간보급사업 신청·접수

임실군이 대기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하여 2024년 하반기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지난해 전기자동차 95대(승용차 54대, 화물차 41대)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한 바 있다.

올해 하반기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에는 예산 14억원을 투입해 전기자동차 77대(승용차 29대, 화물차 48대)에 대해 구매를 지원한다.

보조금 지원 금액은 차종별, 규모별로 차등 적용하며, 주민들의 관심이 가장 높은 승용차의 경우 1대당 최대

1,400만원, 화물차는 1대당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구매신청서 접수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주소를 임실군에 연속 3개월 이상 둔 만 18세 이상 주민 또는 임실군 내 사업장 소재지가 있는 기업, 법인 등이다.

하반기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접수 기간은 예산소진 시까지이며, 대상자는 차량 출고·등록순으로 선정한다. 또한, 대상자 자격 부여 후 2개월 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으면 선정에서 취소된다.



전기차 구매희망자는 자동차 판매 대리점을 방문해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판매대리점을 통해 구매지원 신청서를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으로 접수하면 된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임실군 청 환경보호과(063-640-2961) 및 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심민 군수는 “전기자동차 보급을 확대하여 임실군이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사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 순창군, 화장 장려금 지원 대상 확대

순창군이 묘지로 인한 국토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화장 장려금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이번 조치로 군은 묘지로 인한 환경 훼손을 방지하고, 더 많은 주민들이 화장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당초 군은 사망일 기준 순창군에 1년 이상 연속해 주소를 두고 거주한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만 화장 장려금을 지급해 왔다.

하지만, 이달 15일부터는 순창군 내 유언고 분묘를 개장해 화장한 연고자,

사산아와 출생신고 전 사망한 영아의 부모까지 확대해 제도의 사각지대를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화장 장려금 신청기한을 당초 화장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완화했으며,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 화장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를 고려해 신청기한의 예외 규정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이달 15일부터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또는 유언고 분묘를 개장해 화장한 연고자는 화장일로부터 6개월(180일) 이내에 화

장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구비서류(화장 증명서, 영수증 등, 개장의 경우 개장 신고 증명서 포함)를 첨부해 사망자 주소지 또는 분묘 소재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이 지정된 계좌로 화장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최영일 군수는 “관내 화장시설 부재로 인한 순창군민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화장 장려금 지원 대상자를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군민이 혜택을 누려 선진 장례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순창군과 BHF리버스그룹이 도농교류 활성화와 치유·힐링 기반 상생협력을 위한 ‘농촌사랑 동행순창’ 협약을 9일 체결했다.

# ‘농촌사랑 동행순창’ 협약

### 순창군-BHF리버스그룹, 도농교류 활성화·상생협력 구축

순창군과 BHF리버스그룹이 도농교류 활성화와 치유·힐링 기반 상생협력을 위한 ‘농촌사랑 동행순창’ 협약을 9일 체결했다.

순창군청에서 열린 이날 협약식에는 최영일 순창군수, 양운정 BHF리버스그룹 회장 등 두 기관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양 기관은 △회원 연수·워크숍·나눔행사 추진 시 시설과 프로그램 지원 △순창투어 등을 통한 도농교류 활성화 △치유·힐링 기반 면역력 강화를 위한 정책발굴 및 협업 등 각 단계 간 상호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과 지속적인 교류를 약속했다.

또한, 이번 협약과 함께 양운정 회장은 협약식에 참석한 임직원 전원과 함께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향사랑기부금 630만 원을 기탁해 지역소멸 위기에 처한 순창군을 응원했다.

BHF그룹은 서울 금천구에 위치한 본

사(BHF)를 비롯해 전국에 70개 센터를 운영하는(주)리버스영월드 등 7개의 계열사와 3개의 파트너사로 이뤄진 그룹으로 3만1,000여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2021년 ‘고객감동 혁신 기업 대상’ 〈사회 공헌 부문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으며, 치유·힐링 기반 면역력 강화를 위한 프랜차이즈로 영역 확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양운정 회장은 “치유와 힐링의 명소인 순창군과의 상호 우호 증진 및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한 협력과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도농교류 활성화, 치유·힐링 기반 협업 발굴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BHF그룹과의 농촌사랑 동행순창 협약을 기점으로 기업과 자치단체 간에 실질적인 상생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영역 발굴 등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회답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 순창군, 전북특별자치도민체전 성화 봉송주자 모집

순창군이 제61회 전북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의 시작을 알리는 성화 봉송 행사에 군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이달 19일까지 성화 봉송 주자를 모집한다.

성화 봉송 주자 모집 인원은 10개 면에서 80명, 읍에서 32명으로 총 112명이다. 봉송은 11개 읍면별 14구간으로 나눠 각 구간별로 주주자 1명, 보조주자 1명, 호위 주자 6명 등 총 8명이 순창군 전역을 순회하며 봉송한다.

신청 자격은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15세 이상이며 순창군 해당 읍면에 거주하는 자로, 봉송을 완주할 수 있는 신체 건강한 사람이면 누구나 각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선발된 주자는 예행연습 등 사전 교육을 거쳐 예정이며, 유니폼과 운동화, 양말 등이 지급된다.

이번 성화는 9월 5일 화문산 정상에서 체화를 시작으로 순창군 전 지역을 순회 봉송 후 순창군청에 안치해 다음 날인 9월 6일 공설운동장으로 봉송할 계획이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전라북도에서 전북특별자치도로 변경된 후 처음으로 열리는 도민체전을 우리 순창군에서 개최하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많은 군민들이 주자로 지원해 이 뜻깊은 행사에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 지역 소식통

### 남원군향배 전국 유소년 배구대회 12~14일 개최

남원시는 오는 7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제3회 남원군향배 전국 유소년 배구대회 가 남원종합스포츠타운과 남원중앙초 체육관에서 열린다고 전했다.

이 대회는 남원시체육회(회장 류홍성)가 주최하고, 남원시배구협회(회장 양완철)가 주관하는 대회로, 전문체육부 7개팀(초등부)과 스포츠클럽부 22개팀 450여명이 참여, 전문체육부는 남원중앙초 체육관에서, 스포츠클럽부는 7월 13~14일 2일간 남원종합스포츠타운에서 겨루게 된다.

대회 관계자는 “이번 전국 유소년 배구대회 같은 전국대회를 치름으로써 남원시가 스포츠 명품도시로서 도약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방문하는 선수단의 안전과 숙박에도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 남원농기센터, 귀농귀촌 기초영농기술교육생 모집

남원시농업기술센터는 농촌으로 이주한 신규농업인 및 청년농업인 등 교육희망자에게 영농능력 및 지역민들과의 소통 능력 등을 높여주기 위해 귀농귀촌 기초영농기술교육(2기) 교육생을 오는 8월 9일까지 모집한다.

모집은 30명(선착순)을 모집하며, 귀농귀촌 성공적 정착 노하우 특강, 관내 우수사례 농가 현장교육, 귀농 사업계획서 작성 및 피드백, 귀농귀촌 농자법 특강 등 도움이 되는 분야의 교육을 10월 18일(금)까지 매주 금요일마다 총 10회(1일 4시간) 진행, 자세한 일정 및 신청은 농촌진흥청 인력육성(063-620-8015)으로 문의하거나 시청홈페이지(통합예약·시스템)에서 할 수 있다

센터 관계자는 “이번 교육에 참여한 농업인들이 영농에 대한 자신감과 도전하고자 하는 작목에 대해 스스로 탐색하고 선택하여 소득기반을 다지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엔 치즈**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엔 치즈**

벨기에 출신 지정한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권주 임실엔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엔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